

‘디지털 대전환·미래교육의 변화’

도교육청,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 2차 공청회 열어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해 보급 필요성에 공감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오후 2시 청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디지털 대전환과 미래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1차 공청회가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목적이었다면, 이날 열린 2차 공청회는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부산시교육청 미래인재과 김성용 장학사가 ‘부산시교육청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사례’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일수 연구원이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구축과 운영’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종호 연구위원이 ‘디지털 사회 학교 교육’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료는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전북교사노조 서영배 초등부위원장,



전북도교육청은 17일 오후 2시 청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디지털 대전환과 미래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총 박지웅 청년위원회 위원장, 진교조 전북지부 고종호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스마트기기 중독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온라인으로 격려사를 보내왔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첨단 기술을 교사들이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들이 에듀테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과 잘 협의해 군 지역에 IT시범학교 도입과 같은 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의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21.4%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취임 이후 출근 에듀테크 기반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선생님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17일 익산 이든재활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려운 이웃 돕기 적극 동참”

서거석 교육감, 익산 이든재활주간보호센터 방문

서거석 교육감은 17일 익산 이든재활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설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보내 사회복지시설 20개소를 찾아 쌀, 화장지, 누룽지, 김 등 격려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든재활주간보호센터는 정서안정, 신체적 도움 기능회복 또는 기능증진, 목욕, 위생관리, 식사 도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다.

이에 앞서 서 교육감은 18일 도교육청 청소, 경비, 조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품을 전달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코로나19 등으로 도민들의 삶이 어려울 때 공직자들이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사회재난 분야 공로 인정

전주대 소라엘 추빙교수

전북도지사 표창 수여받아

전주대학교 소라엘 초빙 교수(예술심리치료학과)가 2022년도 사회재난 분야의 안전 관리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소라엘 초빙교수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음악심리치료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발생 재난 사건 경험자들에게 심리회복을 위한 음악심리치료 및 상담을 제공했다.

소라엘 초빙교수는 “앞으로도 음악 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심리적·정서적 건강을 회복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는 음악, 미술, 무용/동작 심리치료 전공 과정을 개설, 인간의 정서·신체·인지·관계적 변화에 관심을 두고 예술과 과학이 융합되는 예술심리치료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국립순산대 보직자 회의

대학 미술관서 개최 ‘눈길’

국립순산대학교가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교내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등 행정 운영에 참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순산대학교는 17일 아침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는 주요 보직자 회의를 순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관에서 개최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학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가 열린 미술관에는 마침 전북지역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들의 작품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더욱 이채를 띠었다.

그동안 순산대학교는 ‘공감과 소외’ 소통회의를 개최하는 등 행정을 탈피한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형식을 탈피한 자유로운 형태의 소통 회의를 마련해왔다. /순산=김판근 기자

청년·신증년 고용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기전대 산학협력단 운영

진안군일자리센터, 무진장

축산물유통과 협약 체결

전주전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와 농업회사법인 무진장축산물유통(주)(대표 박천호)는 17일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안군의 청년 및 신증년 고용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청년 및 신증년 고용일자리 기회 확대와 고용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아이템 발굴 및 정보 교류 △구인·구직 간 일자리 매칭 시스템 운영 등 지역인의 실업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구인요청에 의한 공고대행 및 알선에 관한 사항 △고용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상호 지원체계 활용



전주전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일자리센터와 농업회사법인 무진장축산물유통(주)는 17일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우수 기업체 홍보활동 등 지역 인력 채용분위기를 확산 및 정착 △기타 양 기관의 실무협약에 따른 합의 사항 등이다.

최영규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진안군 청년 및 신증년 고용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올해도 진안군일자리센터는 관내 구

인·구직 미스매칭 해결과 취업연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일자리센터는 지난 12월 전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에서 ‘B등급’의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은성 기자

“전국 여교수회 조직·역할 활성화”

전북대 음악과 이은희 교수, 전국 여교수연합회장에

전북대학교 이은희 교수(음악과)가 전국 여교수들의 권익 보호와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전국 여교수연합회장에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취임식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LW컨벤션에서 전국 10개 지회 회원들과 지역 및 경제, 문화계 여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여교수연합회는 1998년 창립, 전국 10개 지회와 22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플랫폼 구축과 콜라보레이션 학습 교류 세미나, 워크숍 개최, 취약 여성에 대한 교육지원 등 사회적 봉사뿐 아니라 리더십을 지닌 여성인재 양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 교수는 1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

며, 대학 내에서 여성교수의 위상 개선과 여성 인생주기를 고려한 교수평가 방식 개선, 대학 내 양성평등 등 미래지향적인 방안 제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이은희 심임 회장은 “전국 각 대학 여교수회의 조직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각 지역 지회 활동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특히 회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과, 회원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콜라보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등 소통과 섬김의 자세로 전국여교수연합회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1991년부터 전북대 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세계레슬기악연구회장, 전북 문화예술 지원위원, 극동방송 ‘시와소리’ 진행, 문화예술전문단체 뮤직씨어터 슈비빙 대표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돌봄전담사 6시간 근무 전담 시 돌봄업무, 교사 업무분장서 제외를”

전북교사노조 “전담사들이 업무 전담해야”

전북교사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전담사의 6시간 근무 전환 시 돌봄업무를 교사의 업무분장에서 제외하고, 돌봄전담사들이 업무를 전담할 것을 요구했다.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감은 학교장 지도권이 있고 학교장은 초·중·고교를 제외하고 교무실을 총괄할 수 있다”면서 “교육감은 돌봄전담사의 돌봄업무 전담을 학교장에 권고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돌봄 업무를 교사의 업무분장에서 제외시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일 전북교육청 ‘초·중·고 돌봄 운영 시간 연장 관련 협의체’에서는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1일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돌봄전담사들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돌봄전담사는 돌봄 행정 업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미미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주 5일을 11시 30분에 출근할 경우 돌봄 활동이 주 2일은 오후 1시에, 주 3일은 오후 1시 40분에 시작된다. 또한 현재 돌봄프로그램은 외부강사가 주당 3시간씩 투입되고 있기에 그 시간 역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돌봄전담사 근로 시간을 6시간으로 전환한 제주, 경북, 세종은 돌봄전담사가 돌봄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전남은 전체 돌봄전담사 829명 중 6시간 근무자 583명, 8시간 근무자가 46명인데 이 경우 역시 돌봄전담사가 모든 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성 기자

“연극·역할극으로 학교폭력 예방해요”

도교육청, 연극 운영단체 공모... 20일까지 신청접수

25일 관계자 사전 설명회 통해 대본 표준안 안내

내달 9~10일 사업 신청 단체 대상 공연평가 진행키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0일까지 2023학년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연극 및 역할극 운영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학교폭력 예방 및 역할극 운영이 가능한 연극 단체로, 극단 등 연극활동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되거나 그 이외 연극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

연극은 학교별 관계·회복을 중심으로 한 공연(30분)과 토크콘서트(30분)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대본 표준안은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토크콘서트 구성은 단체 재량으로 가능하다. 또 역할극은 모뎀댄스, 단체 시연, 지도강사 지도, 학생 공연 등의 흐름

으로 진행, 학교당 5차시를 운영하고, 1차시당 학급별 학생 수에 따라 최대 4명의 강사를 지원해 소규모 모뎀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단체현황, 소속 단원(강사) 명단 등의 제출서류를 작성해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uprising@jduk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25일 연극단체 대표 및 관계자 사전 설명회를 통해 연극 대본 표준안 등을 안내하고, 2월 9~10일 공모 사업을 신청한 연극 단체를 대상으로 공연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2월 12일 개별 통보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청소년

그림책 아카이브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3월부터 10월까지 2023년 ‘청소년 그림책 아카이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그림책 아카이브’는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그림책 1권을 제작 및 출판하는 교육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K-에듀파인 공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참여했던 전주전중학교 학생은 “내가 직접 책을 만든다는 성취감이 좋았다. 쉽게 생각했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